

학습 공동체 '온마을 이음학교' 출범

광주시교육청·광산구청 공동 '창의성 갖춘 민주시민 육성'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청과 손잡고 온마을이음학교 광산교육협력센터(센터명 이음)를 출범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온마을이음학교' 설치·운영은 '2023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시교육청과 광산구청이 함께 공모해 선정된 교육부 사업이다. 초·중·고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광산교육협력센터는 광산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교육활동을 보다 섬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의 3대 방향은 ▲교육협력 기반 마련 ▲학교자율 책임운영 ▲교육자치 확대다. 구체적으로 ▲광산교육 협치체계 구축 ▲주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 기반 조성 ▲민·관·학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일반교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브랜드 개발 ▲칸막이 없는 협력의 8가지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쳐 나간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교육협력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발판으로, 온마을이음학교가 광주 전제로 확대 미래교육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의 모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창의성'을 갖춘 기숙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교육협력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활동, 사람과 기관을 이어 광산구를 어디나 배움터로 만들어갈 것이다"며 "정소년,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학습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상생·혁신의 교육생태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광산구청과 협약을 시작



온마을이음학교 광산교육협력센터가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센터의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으로 다른 자치구와도 추가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역자원 연결 등을 통해 온 마을을 이어주는 '온마을이음학교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3개 구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온라인학교 이름 '빛고을온학교' 확정...9월1일 개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개교하는 온라인 학교의 이름을 '빛고을온학교'로 확정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립학교 개교심의회를 열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가칭)빛고을온라인학교' 교명을 '빛고을온학교'로, 개교일을 9월 1일로 결정했다.

빛고을온학교의 '온'은 '온라인'과 '모든'을 의미하는 '온'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최초로 제안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지난해 9월 교육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빛고을온학교는 교실 등을 갖추고, 교원을 배치해 온라인 기반으로 여러 학교의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다.

광주 남구에 있는 옛 광주과학고 기숙사동을 개축해 최신 원격교육 기반과 설비를 갖춘다.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빛고을온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문장론, 영미 문학 읽기, 인공지능 수학,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융합과학 탐구, 공학 일반, 빅데이터 분석, 정보과학 연구,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

시교육청은 개교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꿈키움캠퍼스' 수업 시작합니다

전남도교육청, 고교·대학 공동교육...AI수학·고급물리학 등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한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 정인 '꿈키움 캠퍼스'를 본격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지역의 고교생들이 단위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웠던 소인수 선택과목과 전문교과를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꿈키움 캠퍼스' 수업이 10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꿈키움 캠퍼스'는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청양대, 한국외대, 지리산생태탐방원, 국립정호초자연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개설된 강좌는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마케팅과 광고' '기업과 경영' '인공지능(AI) 수학' '고급물리학' '생태와 환경'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등 35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온-

오프라인·협동형 실기집중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1기 꿈키움 캠퍼스에는 6강좌에 29개교, 74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꿈키움캠퍼스'는 총 4기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전남·광주 지역 9개 대학과 연계해 개설된 57개 강좌에 68개교 80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정선영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꿈키움 캠퍼스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고교학점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며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학교자율 종합감사' 확대

참여학교 13곳→28곳 "책임있는 교육자치 실현" 기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청 주도의 기존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스스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확대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시행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올해 28개 공립학교(유 3, 초 17, 중 8)로 확대한다. 지난해 참여학교 13개교에 비해 115% 증가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 감사관을 꾸려 스스로 감사 시기·방법을 결정하고 자체 개발한 자율 점검표를 활용, 학교업무 전반을 점검·시정·개선하는 방식이다.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한 감사일정 조정은 물론 감사자로 작성 선택, 공개된 점검항목의 연중 수시 점검·보완이 가능해 기존 종합감사 준비에 따른 행정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입 이후 행정감사 규칙 개정과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도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참여한 학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 전문성 향상(92.0%) ▲학교 교육력 제고(90.1%) ▲예방·지도 기능 강화(92.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재술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더욱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적·처분위주의 감사에서 미래 지향적인 예방위주 감사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 학교 구성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교육자치 운영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산학협력단, 교수 개인실험실 장비 외부 개방...산학연 협력

지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대학 내 각 센터에 집적화한 분석 및 시험장비를 개방 중인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는 교수 개인실험실에서 보유 중인 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한철)은 교수 본인의 연구에 사용 중인 고가장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장비의 외부개방을 동의하는 교수들의 실험실들을 공동장비운영센터 분석실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학협력단은 최근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관련 교수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실험실에 대한 공동장비운영센터 분석실 지정 현판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최한철 조선대 산학협력단장은 "지속적인 교수



실험실 장비의 외부 개방 확대를 통해 산업체와 대학이 장비 공동활용과 더불어 기술개발, 기술이전 등 각종 산학연협력을 활발히 해 우리 대학이 지역

중심대학의 위상을 견지하고 더불어 산학연협력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창업보육센터,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센터 선정

호남대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영현)가 '2023년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할 광주·전남권 참여센터에 선정됐다.

'2023년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14개가 선정된 가운데 광주·전남권은 호남대창업보육센터와 남부대창업보육센터가 공동으로 선정돼 운영하게 됐다.

교육은 스타트업의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호남대창업보육센터와 남부대창업보육센터는 각 기업들의 수요파악을 통한 '지식재산권 입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IP경영전략' 등의 교육을 6, 7월중에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호남대창업보육센터 김영현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릭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과비를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성지점 062)528-2640~2	삼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